

제6장. 말뿌리와 뒤붙이(또는 일부 토)의 적기

제19항. 자음으로 시작한 뒤붙이가 말뿌리와 어울릴 때에는 각각 그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1) 새 단어를 새끼치는 뒤붙이

례: — 곧추, 날치, 덮개, 돋보기, 셋째,
앞사귀
— 꽃답다, 뜯적뜯적하다, 의롭다

2) 동사의 사역, 피동의 기능을 나타내는 《이, 히, 기, 리, 우, 구, 추》

례: 놀이다, 막히다, 꽃히다, 뽀히다,
얹히다, 익히다, 입히다, 감기다,
담기다, 말기다, 옮기다, 웃기다,
살리다, 새우다, 돋구다, 맞추다

3) 힘줄을 나타내는 《치》

례: 놀치다, 덮치다, 받치다, 뽀치다, 얹
치다

4) 형용사를 동사로 만드는 《추》, 《히》

례: - 낮추다, 늦추다

- 곧히다, 넓히다, 밝히다

5) 《하다》가 붙어서 형용사로 될수 있는 말
뿌리와 어울려 부사를 만드는 뒤붙이 《히》

례: 넉넉히, 답답히, 미끈히, 꾸준히, 똑

똑히, 빠히, 씨원히

제20항. 말뿌리와 뒤붙이가 어울려 파
생어를 이룰 때에 빠진 소리는 빠진대로 적
는다.

례: 가으내, 겨우내, 무질(물속에 잠기

는것), 바느질

제21항. 《ㄹ, ㄹ, ㄹ, ㄹ》 등의 들받침
으로 끝난 말뿌리에 뒤붙이가 어울릴 때에 그
들받침중의 한 소리가 따로 나지 않는것은 안
나는대로 적는다.

례: 말끔하다, 말쑥하다, 실쭙하다, 할

썩할썩하다, 알팍하다

제22항. 말뿌리와 뒤붙이가 어울리어 아주 다른 뜻으로 바뀐것은 그 말뿌리와 뒤붙이를 밝혀 적지 않는다.

례: 거두다, 기르다, 도리다, 드리다, 만나다, 미루다, 부치다, 이루다

제23항. 모음으로 된 뒤붙이가 말뿌리와 어울릴 때에는 다음과 같이 갈라 적는다.

1) 말뿌리와 뒤붙이를 밝혀 적는 경우

(1) 명사나 부사를 만드는 뒤붙이 《이》

례: — 길이, 깊이, 높이, 미닫이, 살림살이, 손잡이, 해돋이
— 네눈이, 삼발이
— 같이, 굳이, 깊이, 많이, 좇이
— 곳곳이, 날날이, 살살이, 집집이

그러나 본딴말에 붙어서 명사를 이루는것은 밝혀 적지 않는다.

례: 누더기, 더퍼리, 두드러기, 무더기, 매미, 깍두기, 딱따기

(2) 명사를 만드는 뒤붙이 《음》

례: 갇음, 걸음, 물음, 믿음, 즐음, 죽음,
꽃묶음, 엮음, 웃음, 이음

그러나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말뿌리와 뒤붙이를 밝혀 적지 않는다.

례: 거름(거름을 내다)
고름(고름을 짜다)
마름(한마름, 두마름)
주검(주검을 다루다)

(3) 동사의 상을 나타내거나 형용사를 동사로 만드는 《이》, 《우》, 《으키》, 《이키》, 《애》

례: 높다, 놀이다, 먹이다, 쌓이다, 돈
우다, 일으키다, 들이키다, 없애다

(4) 《하다》가 붙어서 형용사로 될 수 있는 《ㅅ》 받침으로 끝난 말뿌리와 어울려서 부사를 만드는 뒤붙이 《이》

례: 반듯이(반듯하게 펴놓다), 곳곳이, 깨
끗이, 따듯이, 뚜렷이, 빵긋이, 뿌듯
이, 어렴풋이

(5) 형용사를 만드는 《없》

례: 객없다, 덧없다, 부질없다, 시름없다

(6) 《거리》와 어울릴수 있는 말뿌리에 붙어서 동사를 만드는 뒤붙이 《이》

례: 반짝이다, 번득이다, 번쩍이다, 속삭이다, 움직이다

2) 말뿌리와 뒤붙이를 밝혀 적지 않는 경우

(1) 말뿌리에 《이》, 《음》 이외의 뒤붙이가 붙어서 이루어진 명사나 부사

례: 나머지, 마감, 마개, 마중, 바깥, 지붕, 지푸레기, 꼬트머리, 뜨더귀, 싸레기, 쓰레기, 올가미

례: 너무, 도로, 바투, 비로소, 자주, 뜨덤뜨덤

례: 거뭇거뭇, 나뭇나뭇, 쫘긋쫘긋, 오긋오긋, 울긋불긋

(2) 어떤 토나 《하다》가 붙어서 단어를 이루는 일이 없는 말뿌리에 뒤붙이 《이》, 《애기》, 《어기(에기)》, 《아기》가 붙어서 된 명사나 부사

례: 갑자기, 동그라미, 반드시, 슬며시, 흐르래기, 부스래기

(3) 뒤붙이 《알, 얼》 또는 《업》, 《음》이 붙어서 이루어진 형용사

례: 가말다, 발갈다, 파랄다, 싸느랄다, 누
럴다, 등그럴다

례: 간지럽다, 미덥다, 부드럽다, 시끄
럽다, 징그럽다, 어지럽다, 우습다

제24항. 부사에서 뒤붙이 《이》나 《히》
가 그 어느 하나로만 소리나는것은 그 소
리대로 적는다.

1) 《히》로 적는것(주로 《하다》를 붙일수 있는것)

례: 고요히, 덩덤히, 마땅히, 빈번히, 지
극히, 뻔히

2) 《이》로 적는것(주로 《하다》를 붙일수 없는것)

례: 간간이, 고이, 기어이, 객쩍이, 뿔
뿔이, 째짤이

3) 말뿌리에 직접 《하다》를 붙일수 없으나
《히》로만 소리나는것은 《히》로 적으며 말뿌리에
직접 《하다》를 붙일수 있으나 《이》로만 소리나
는것은 《이》로 적는다.

례: - 거연히, 도저히, 자연히, 작히
- 큼직이, 뚜렷이